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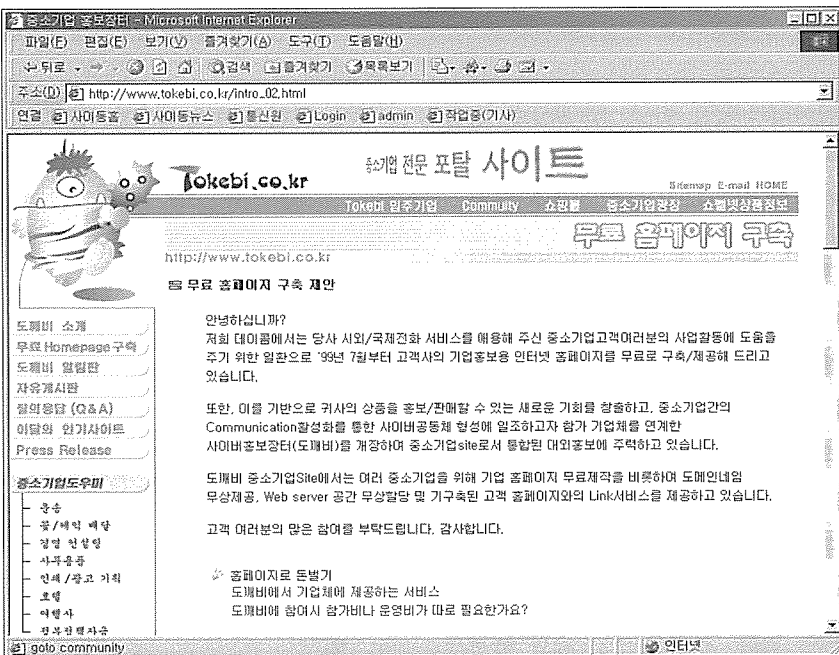
## 인터넷 서점 할인판매는 불법 행위인가

10월 5일 단행본 출판사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는 30여개 출판사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도서할인판매를 실시하는 인터넷 서점과 여기에 납품하는 도매상에 책을 넘기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도서할인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업체는 이같은 출판인회의의 결의가 부당한 가격담합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월 9일 문화관광부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비롯됐다. 이

법안에는 도서정가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도서 할인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작년년부터 할인판매에 힘입어 국내 인터넷 서점의 대표로 급부상한 예스24(대표 이강인)를 비롯하여 알라딘, 북파크 등의 인터넷 서점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점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금룡)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 역행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기반을 말살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내의 도서정가제는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물에 한하여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부 축소됐다. 하지만 출판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002년 말까지 현행의 도서정가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도서할인폭을 지정하는 등 부분 정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할인판매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문화관광부는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이달 내 관련업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데이콤, 경기지역 4만여 중소기업 대상 정보화 지원



데이콤(사장 정규석)은 자사의 중소기업 홍보장터 도깨비(www.tokebi.co.kr)를 통해 중소기업의 e-biz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데이콤은 협의회 참여를 계기로 1999년 7월부터 추진해온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경기지역 4만여 중소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개설하고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지원 및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은 별도의 부담없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홍보를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데이콤은 이곳에서 전도유

망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 구매에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과 결제기능을 무료로 추가해 주고 실비 수준의 요금만으로 상품을 등록해 줄 계획이다. 또한 데이콤은 중소기업들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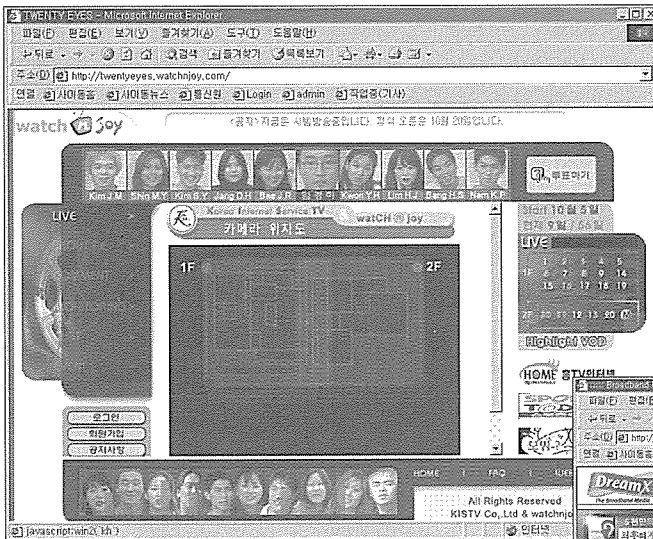
정보와 업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업계간 B2B가 가능하도록 포털사이트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내년까지 경기지역 5천개 중소기업에게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주고 이를 연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

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데이콤 도매비에는 1천3백여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데이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한가지라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한국판 트루먼쇼

-한국통신과 드림라인, 10월 5일과 9일부터 각각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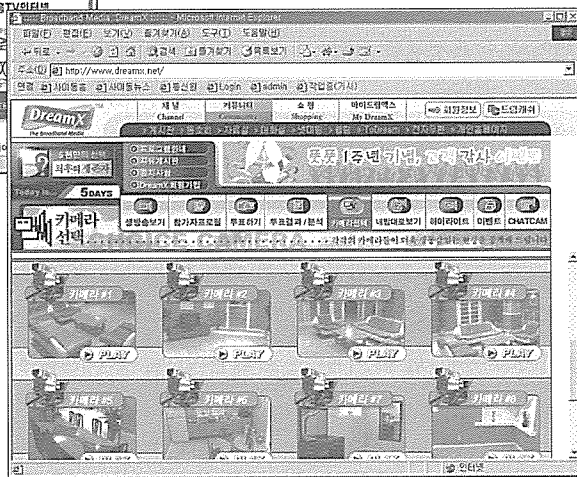
영화 트루먼쇼에서 소개된 리얼리티 쇼가 국내에서 연이어 막을 올린다.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의 인터넷 방송국인 와치엔조이(www.watchnjoy.com)는 10월 개국 기념 이벤트로 국내 최초로 트윈타이즈쇼를 시작하고, 드림라인(사장 김철권)도 '5천만의 선택, 최후의 생존자' 프로그램(www.5000choice.com)을 통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찾는다. 한국통신의 트윈타이즈쇼는 130:1의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10명

의 남녀 참가자가 10월 5일부터 56일간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한다. 참가자들은 외부와

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채 서로 필요한 의사소통만을 할 수 있으며,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주는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최종 생존자에게 5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이 트윈타

이즈쇼는 몰래 카메라 기법으로 집단의 사회화 과정을 지켜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통신의 이번 행사는 와치엔조이의 콘텐츠 제공사업사인 KISTV와 공동 사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미디어 포털업체 드림라인과 MNET, 트루멍, fun-TV, 쇼부닷컴 등 5개 회사가 공동 제작하는 '5천만의 선택, 최후의 생존자' 프로그램(www.5000choice.com)은 2만여명의 신청자 가운데 선발된 10명이 10월 9일부터 총 60일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생중계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이 좋아하고 희망하는 인간형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표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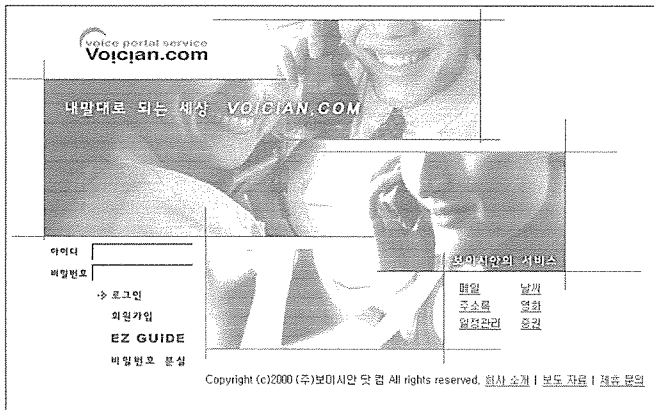
로 선발된 10명의 참가자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사회 속에서 한국인의 특성과 심리를 알아보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인터넷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순한 인터

넷 서바이벌 게임이나 사생활 엿보기 식의 몰래 카메라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

자들은 한국통신의 트윈티아이즈쇼와는 달리 주어진 과제수행 외에도 요일별로 태권도, 다도, 전통예절 등의 수

업에 참여하고, 생방송을 지켜보는 네티즌과의 채팅을 통해 참가자의 개성과 성격을 주장할 수도 있다.

## 한국통신 음성포탈 서비스, 음성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에서는 텔미닷컴 (tellme.com), 콕닷컴 (quack.com), 비보컬닷컴 (bevocal.com), 텔서프닷컴 (www.tellsurf.com) 등이 음성포탈

합성기술이다. 현재 음성인식률이 95% 수준에 이르렀지만,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느냐가 또다른 문제다. 특히 정보량의 증가에 따라 키워드가 추가될수록, 또 사투리가 섞인 억양과 발음에 따라 인식률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이용한 IMT-2000 서비스가 시작되면 굳이 음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포탈 서비스의 미래가 낙관적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음성포탈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보이시안닷컴(대표 백종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9월 22일부터 음성포탈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성포탈 서비스란 사용자가 전화를 걸어 정해진 키워드를 말하면 음성인식장치가 해독한 후 인터넷상의 해당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는 음성합성장치를 통해 검색결과를 듣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서비스이다. 현재 미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나 시각 장애인도 어렵지 않게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의 보급률 증가와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음성포탈이 기존의 인터넷 포탈서비스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포탈 서비스의 관건은 정확한 음성인식기술과 자연음에 가까운 음성

시범 서비스 기간동안 보이시안닷컴은 메일, 주소록, 일정관리 등 개인정보 검색서비스와 날씨, 영화, 증권정보 등의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하는 11월에는 음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이시안닷컴 홈페이지(www.voician.com)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1588-0888로 전화를 걸어 원하는 서비스를 음성으로 검색하면 된다.

## 인텔,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유산 인터넷에서 재현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 인텔은 호주의 파워하우스박물관과 공동으로 '올림픽 천년 및 고대 그리스 유산 전

시회' (<http://www.intel.com/kr>, <http://www.phm.gov.au>)를 인터넷 공간에서 재현한다. 파워하우스에

서 실물 전시되는 유물을 바탕으로 한 이번 인터넷 전시회에서는 2000년 전 고대 올림피아의 신전을 비롯한 유적을 볼 수 있으며, 그리스의 아테네고고학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던 제우스상도 접할 수 있다.



고대 올림픽아관에서는 기원전 200년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제우스 신전과

우 주변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둘러볼 수 있는 가상 전시회 제작에는 멜버른

같은 고대 신전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올림픽 아 현장을 고대 그리스 시대와 비교 여행할 수도 있다. 실제 유적지에 서처럼 좌

대학 연구팀의 가상현실기술이 적용되었다. 방문객들은 이 기술이 박물관과 전시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360도 관찰이 가능한 제우스상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방문객들은 가계도로 작성된 고대 그리스 신들의 복합 가계를 발견하고, 기원전 3000년에서 서기 600년까지의 역사적 시간대를 여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관한 논문도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정보 및 이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즉시 접할 수 있고, 그리스 역사 연구를 위한 교육용 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다.

## 외산 PDA업체가 몰려온다.

국내 개인휴대용단말기(PDA) 시장은 지난 1997년 미국 3Com의 팜파일럿(Palm Pilot)이 첫 선을 보인 이래 올해 9월 현재 12만대 이상의 제품이 팔릴 정도로 성장했다. PDA는 간편한 휴대성과 PC 못지않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PC와의 자료호환 등을 특징으로 이동컴퓨팅의 일정한 영역을 확보했다. 특히 PDA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무선인터넷의 단말기로 각광받으며 국내에서도 20여개의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HP, 컴팩코리아, 팜컴퓨팅, LGIBM 등 외국계 컴퓨터업체들이 앞선 기술력과 브랜드파워를 무기로 국내 PDA 시장 공략에 나서 국내 업체

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HP는 윈도CE를 채용한 '조나다' 2개 모델을 11월 초 국내 시장에 소개할 예정이다. 조나다 모델은 미국에서 호평받은 여세를 몰아 국내에서도 시장점유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 PDA 시장 점유율 1위의 팜컴퓨팅은 국내 총판 세스콤을 통해 지난 9월 19일 '팜Vx', '팜IIIc', '팜m100' 등 3가지 신제품 발표회 및 시연회를 갖는 등 국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LGIBM도 팜Vx와 동일한 사양의 '워크패드c3'를 발표하고 PDA 시장에 신규 진입했고, 'iPAQ H3630'을 발표한 컴팩코리아는 10월 중 이 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

정이다.

이에 따라 애플러스텍, 밀레텍, 제이텔 등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PDA 업체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PDA 시장이 받아하기도 전에 외국업체의 적극적인 공세에 와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 업체는 대부분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지명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외산 업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위기에 몰린 국내 PDA 업체는 최근 협의회를 구성하여 애플리케이션 공동개발, 기술교류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는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①⑦

李 懸 (동아 사이언스 기자)